

일본의 새소식



장난감 마을
제9회 한일포토콘테스트 나가사키현상
PHOTO : KIM SANG GOO



송혜선 교수 인터뷰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



현재, 인덕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교수이자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송혜선 교수를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배우면 배우수록 어려운 언어다. 일본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일본어에는 관계를 중시하는 이치고 이치에(一期一会 :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 같은 단어가 많다.”며 자신이 느낀 일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번호에서는 송혜선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소중한 인연과 만남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学)에서 일본어 문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에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BK연구교수, HK연구교수를 하다가 현재 인덕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인덕대 일본어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일본 취업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일본 취업을 위해 산업인력 공단의 K-MOVE 사업에 참여하여, 일본어과 졸업 후 IT교육원과 연계하여 IT 교육을 진행한 후, 일본의 IT기업으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누적으로 약 100명 가까운 졸업생이 일본의 IT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일본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 인가요.

고등학교때, 제 2외국어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하면서 일본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1985년 대학입학 당시에는 일본 문화나 일본어 방송이 금지된 시대라 단파 라디오를 구입해서 일본 방송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할때 도쿄 오타구(大田区)에서 4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4개월 간 한국어 무료 수업을 했는데, 10명 정도가 남아 수업료를 낼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유학생인 저를 도와주기 위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7년간이나 일부러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2004년 학위를 받고 귀국 후, 2009년에 올린 제 결혼식에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수강생 중 한분은 1년 후 제가 근무하던 고대 일본학연구소로 찾아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축의금을 건네주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수강생에게는 자신이 재일교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업을 듣던 분도 계셨는데, 저에게는 재일교포임을 밝히고 한국의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수업을 듣던 중에 가족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유학생과 같이 먹으라며 밥도 사주시고, 일본 명절인 오봉(お盆)이나 정월(正月)에 일본무용을 보여주거나 밥도 사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국어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중 살았던 고미바유학생 회관 직원도 휴가를 내서 제 결혼식에 와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 전문가로서 일본어를 배우는 재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훨씬 깊이가 있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는 관계를 중시하는 이치고 이치에(一期一会: 일생에 한번뿐인 소중한 만남) 같은 단어가 많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서 자매대학인 시모노세키(下関)의 바이코카쿠인대학(梅光学院大学)과 오이타현(大分県)의 일본문리대학(日本文理大学)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대학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전문적인 스킬을 가르치지만, 일본은 사람과 사람이 접하는 방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점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코카쿠인대학은 학생들에게 재학 중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어학과 학생의 한국어 발음도 너무 좋았고 언어 구사 능력도 뛰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문리대학의 경우, 인간력(人間力)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거나 지역 산업을 보호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도 이러한 일본 대학의 프로그램을 배웠으면 합니다.



자매대학인 시모노세키의 바이코카쿠인대학을 찾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최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에서 진행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이 연구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이희건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한국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신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건재단의 차세대연구자 육성프로그램에 선발된 사람 중, 매달 2명의 신진연구자가 다양한 테마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의 발표에 대해 각 분야의 중진급 전문가에게 토론을 부탁해서 코멘트를 받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학회보다 다양한 연구회가 있어서 연구회 중심으로 연구방법론을 공유하면서 연구자가 연대감을 느끼지만, 한국은 아직 연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진연구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연구를 인정해주면서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공부 많이 되어 연구회가 기다려집니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석사논문을 쓰면서 논문으로 접했던 학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学)에 적을 두고 도쿄에 있는 대학교수님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청강하러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대학(東京大学), 조치대학(上智大学), 릿쇼대학(立正大学), 타쿠쇼쿠대학(拓殖大学) 교수님의 수업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릿쇼대학과 다쿠쇼쿠대학 교수님은 저와 같은 언어학연구회 멤버라 이곳에서 연구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는 타 대학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셔서 직접 지도를 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구방법론을 공유하는 연구회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연구자끼리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회가 자리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이타현 일본문리대학에서 인간력 육성센터를 방문하는 등 교류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에 매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 제가 소속된 요네야마 로타리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뽑혀 현재 히로시마대학 포스트닥터 과정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연구회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 중인 일이 있다면.

현재 일본어 초급 1, 2를 집필 중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좋은 교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안식년으로 일본에 가서 1년간 천천히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일본, 일본어에 관심있는 학생이나 일반 독자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과 학생에게 일본어를 배우면 한국어만 가능한 학생보다 기회가 두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취업할 수 있고, 한국인 친구뿐만 아니라 일본인 친구도 사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가 느리지만 단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을 돌아보았는데, 일본만큼 깨끗하고 친절하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갔을 때, 간사이공항에서 어떤 분께 효고대학(兵庫大学)에 가는 방법을 물어보았더니, 핸드폰으로 20분 가까이 알려주고 캡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학생들과 일본의 자매대학을 방문하고 쇼핑할 때도 빈틈없이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역시 일본은 탄탄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일본어과 학생들이 몇 년이라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아직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변화가 느리기는 하지만 구석구석 빈틈이 없고 잘 조직된 나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실생활에서 접했던 일본인은 정말 순수하고 소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해서 제가 배웠던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 여행 오키나와 투어



글 / 사진 : 박용준, 이진우
endeva@naver.com



01



02



03

오키나와에서 만남 무지개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총 17개의 SDGs 목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한 행동은 다른 목표 달성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목표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등을 위한 개선 목표 설정 |
|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 11) 지속 가능 도시 |
| 3) 건강 및 웰빙 |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
| 4)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 13) 기후변화 대비 대응 |
| 5)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 14) 해양 생태계 |
| 6) 식수 위생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 15) 육상 생태계 |
| 7)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 16) 인권 정의 평화 |
| 8)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 17) 국제적 협력과 파트너십 |
| 9) 혁신과 인프라 | |



04



05



06



07



08

- 01 호시노 리조트의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 02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는 다케토미지마의 마을처럼 꾸며졌다
- 03 이사가키항에서 다케토미항으로 가는 페리
- 04. 05 전통가옥이지만 고급스러운 실내 구조
- 06 류큐의 붉은 기와와 목재로 된 객실
- 07 냉장고에 페트병이 없고 물병이 들어있다
- 08 호텔 곳곳에 놓여 있는 정수기

일본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본의 유명 관광지인 오키나와현(沖縄県)은 2018년부터 일본 정부가 선정하는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었다. SDGs 미래도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뛰어난 대처를 하는 지자체를 국가가 선정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31개 도시가 있다. 선정된 SDGs 미래도시 가운데 10개 사업이 특히 선도적인 대처로 지자체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오키나와현에서는 ‘누구 혼자 남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츠라지마(美ら島: 아름다운 섬)’가 진행중이다. 오키나와현은 SDGs의 슬로건인 ‘지속 가능한 오키나와의 발전’과 ‘누구 혼자 남기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밤하늘

호시노 리조트의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일본을 대표하는 리조트 호텔 호시노 리조트(星野リゾート)에서는 ‘마음대로 SDGs (勝手にSDGs)’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가루이자와에서 진행하던 환경 대책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 호시노 리조트의 성장 단계부터 관광객이 드문 장소를 사람이 찾게 하는 매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식재료와 토지의 문화를 테마로 한 리조트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고 현재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었다. 대부분이 현재의 SDGs에 해당하지만, 대외적으로 발신할 내용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홍보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SDGs의 목소리가 커지자 호시노 리조트의 이러한 활동을 ‘마음대로 SDGs’라는 타이틀로 발신하게 되었다. 이번에 들린 곳은 오키나와에서 전개 중인 호시노 리조트의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星のや竹富島)’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서 다시 페리를 타고 10분을 가야

하는 다케토미지마(竹富島)에 위치해 있다. 다케토미지마는 인구 350명 정도의 조용한 섬으로 자연을 체험하거나 타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곳이다. 다케토미항(竹富港)에서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까지 셔틀버스가 30분마다 운행된다.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는 다케토미지마에 있는 하나의 마을로 건설되었다. 투숙객은 류큐의 붉은 기와와 목재로 디자인된 객실에서 섬 주민처럼 지낼 수 있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부는 고급스럽게 단장되어 있어 오키나와의 전통 가옥에서 안락한 리조트 기분을 맛볼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페트병 프리’

SDGs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다. SDGs의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목표에도 제시된 이 문제를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위해 ‘페트병 프리’를 시행하고 있다. 객실 내 페트병 생수 제공을 중단하고 공용 공간에 워터 서버를 설



- 09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을 활용한다
- 10,11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
- 12 해수 담수화 시스템을 거친 음용수

치했다. 여행 중에는 물론 여행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지는 오리지날 텀블러를 판매해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페트병 프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호시노 리조트의 모든 호텔에서 진행 중이다.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1년 2월 13일부터 호시노 리조트가 자체 개발한 ‘해수 담수화 시스템’으로 끌어올린 해수를 담수화해서 음용수로서 자급하고 있다. 다케토미지마는 생활용수를 10km 떨어진 이시가키시마에서 해저 케이블로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지만, 생활용수로 쓰는 수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가혹한 환경에서 관광객에게 필요한 물을 해수 담수화

장치를 통해 자급할 수 있게 되면서, 객실에서 플라스틱 병에 들어간 미네랄 워터의 제공을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 발전이 일체화된 유닛의 설치에 따라 연간 3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천재지변에도 따뜻한 물과 전력의 자급이 가능해져 다케토미정(竹富町)의 민간기업에서 최초로 대피소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DGs의 목표인 식수 위생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보전을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



- 14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 뚜껑
- 15, 16 잘게 자른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거북이 열쇠고리
- 17 메인 샐러드의 향기가 배 있는 이시가카규
- 18 섬의 약초를 넣어 찌낸 새우 요리



후레아이 마이후나 투어

호시노 리조트 호시노야의 특별한 서비스 하면 단연 액티비티를 꼽을 수 있다. 액티비티 중 물을 테마로 다케토미지마의 역사를 알고, 지속 가능한 자원과 생활을 생각하는 투어 ‘후레아이 마이후나 투어(ふれあいまいふなツアー)’를 떠나보았다. 마이후나라는 뜻은 다케토미지마의 방언으로 ‘착한 사람’을 뜻한다.

세계적으로 고민거리인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 뚜껑을 이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섬사람에게 ‘마이후나’도 되고 자연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어다. 다케토미지마의 문화와 자연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는 ‘다케토미지마 지역 자연자산재단(一般財団法人 竹富島地域自然資産財団)’과 2021년 3월에 파트너십 협정을 맺은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가 섬 특유의 관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재단과 협력해 환경보전 투어를 만들어 냈다.

섬의 음식문화를 반영한 ‘섬 테루아’ 제공

저녁 식사로 섬의 음식문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섬 테루아’가 제공된다. 고기나 어패류가 아니라 식물 유래 식물을 주원료로 한, 섬에서 소중히 재배해 온 콩이나 고구마 등 밭의 소재를 살린 요



리가 나온다. 섬 테루아를 비롯해서 모두 8품의 디너 코스를 제공한다. 테루아(Terroir)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개념으로 농작물을 키울 때 영향을 주는 토양과 날씨, 토지, 지형, 역사, 사람을 말한다.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테루아가 존재하고 생산물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한다. 다케토미지마에서 농작에 관련된 수많은 제사는 지금도 소중히 계승되고 있다.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서는 섬의 특징적인 테루아에서 자란 식재료가 제철을 맞이하는 겨울에 섬의 하늘, 땅, 사람이 만들어내는 미식을 제공하고 있다.



19 해양박물관기념공원
20 고래 상어의 생식에 대한 궁금증도 알아보자
21 수족관을 바라보는 시어터 룸

22 해양 생물을 만져 볼 수 있다
23 돌고래 쇼를 진행하는 여성 조련사
24 오키나와의 명소 추라우미 수족관





25



26



27



28



29

- 25 오키나와의 전통 공예 빈가타 직물
- 26 깨진 유리로 만드는 류큐 글라스
- 27 류큐왕국의 전통 의상 류소우

- 28 옥천 동굴의 조명은 LED로 밝히고 있다
- 29 오키나와 월드의 옥천 동굴
- 30 원래는 난을 재배하는 농가였다

- 31 오키나와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비오스 언덕
- 32 친환경 물소 차
- 33 만져볼 수 있는 섬의 염소



30



31



32



33

해양박람회기념공원

오키나와 본섬 북부 모토부정(本部町)에 위치한 오키나와 해양박람회기념공원(海洋博覧会記念公園)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스팟이다. 이곳에서도 SDGs를 만날 수 있다. 해양생물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평생 학습의 기회를 주거나 오키나와의 자연, 문화, 역사에 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강좌와 전시, 이벤트,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SDGs의 5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직장에서의 여성 활약을 추진하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촉진 등 성평등 실현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청년이나 장애인 고용 추진이나 정년퇴직한 직원의 재고용 등 취업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

해양박람회기념공원의 메인 포인트가 되는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沖繩美ら海水族館). 각층마다 테마가 있는데 1층은 심해 여행, 2층은 구로시오(黒潮) 여행, 3층은 산호초 여행, 4층은 대해로의 초대로 꾸며져 남국의 바다 풍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메인 수조 ‘흑조의 바다’는 깊이 10m, 가로 35m, 세로 27m인 세계 최대급 수조로 전장 8.6m의 거대한 고래상어가 있다. 이런 해양 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생물의 건강 관리와 사육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해 지속 가능한 사육 전시를 하고 있다. 해양 생물의 번식 촉진, 인공 수정, 긴급 보호 등 해양 환경 보전에 임하고, 해양생물 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및 희귀종



34 해양 생물 전시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35 오키나와 민속촌 오키나와 월드
36 오키나와 전통 예능 에이사가 매일 개최된다

보호 등에 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수족관이나 연구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오키나와 월드

오키나와의 남부에 위치한 오키나와 월드(沖縄ワールド). 오키나와 최대 테마파크로 불리는 이곳에서도 SDGs를 만날 수 있다. 오키나와 월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옥천동굴(玉泉洞)은 30만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대자연의 조각으로 아시아 최대급의鍾유굴이다. 총길이는 5km이지만 일반 관광객에게는 약 890m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약 10%는 동굴이나 카르스트 지역에서 생활 용수를 얻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하라 그 존재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이나 파괴가 진행된 동굴, 지하수와 카르스트 지형이 적지 않다. 오키나와 월드에서는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



키나와 동굴 워크 2021' 같은 학회를 개최하는 등 오키나와의 동굴과 카르스트의 매력 그리고 그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 오키나와 월드 시설의 조명 설비를 LED나 태양광 패널 등으로 설치하여 이산화탄소를 삭감하고, 오키나와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J-credit 제도' 인증을 받았다. J-credit이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설비 도입, 삼림 관리 등에 따라 감축, 흡수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일본 내에서 거래하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업체는 추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하는 한편, 일본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옥천동굴의 통로나 연출 조명을 LED 화하는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 월드는 오키나와현에서 박물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옥천동굴의 관리와 운영은 물론, 예전부터 계승되어 온 전통 예능인 에이사(エイサー), 전통 공예인 류큐 글라스(琉球ガラス), 빈가타 직물(瓶型), 류소우(流装) 등을 사업화함으로써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자연과 문화를 미래로 계승하고 있다.

비오스의 언덕

SDGs의 17개 목표에 거의 모두 해당하는 비오스 언덕(ビオスの丘). 비오스 언덕은 원래 난초 재배농가가 필요로 하는 대량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강을 막아 인공 호수를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선착장을 정비해 배를 띄우거나 산책길을 만들어 관광 시설로서 정



37 나무로 된 놀이기구
38 재배된 난은 여러 장소에 사용된다
39 인공 호수를 관광하는 정글 크루즈

비히는 등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비오스 언덕에서 사용하는 식물 관수용 물이나 화장실 물은 연못 물과 빗물 저수를 100% 이용하고 있다. 전시용 꽃은 재사용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전부 생산 보충하고 있다. 비오스 힐에서는 오키나와 브랜드 돼지인 아구(あぐー)나 섬 염소, 물소, 닭 등 오키나와에서 가축으로 기르던 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섬에서 키우는 염소를 무료로 만져볼 수 있다. 원내에는 거대한 그네, 비밀기지 같은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최대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원내의 인기 액티비티인 물소차 타기는 친환경 100%의 액티비티로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즐거운 프로그램이다. 비오스 힐은 육상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액티비티와 연결해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SDGs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추천할 만한 벚꽃 명소



글·사진 :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메세나

오카와 노부코의 여기는 지금



일본은 오랜만에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와 배우 동생이 찾아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갔는데, 길을 묻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난바에 가면 한국 관광객으로 봄벼 '예전의 명동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난바 인근 호텔은 주말에는 예약이 어려우니 사전에 예약하거나 조금 떨어진 우메다 인근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좋습니다. 한국어 메뉴가 없는 선술집과 재미있는 가게 그리고 맛집 등도 많고 부드러운 닭꼬치와 TKG(간장 계란밥) 등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사카에서 즐길 수 있는 현지인으로 봄비는 장소 2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철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이죠. 오사카는 오사카성(大阪城)과 요도야바시(淀屋橋), 나카노시마(中之島) 부근과 오카와(大川)강변 등 벚꽃 명소가 많은데, 남다른 즐길 방법을 추천해 드리자면 한큐(阪急) 전철입니다. 한큐 전철은 일명 '사쿠라 전선'이라 불리는데, 전철을 타고 선로를 따라 핀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토선(京都線)과 다카라즈카선(宝塚線)도 아름답지만 고베선(神戸線)에서는 슈쿠가와역(夙川駅), 아시아가와역(芦屋川駅)에 내려 도시락을 구입해 벗어나 아래서 맥주와 함께 먹으면서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스팟으로도 유명하고, 해외 관광객이 거의 없어 현지인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한큐 전철로 우메다(梅田)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이어서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전철로 2시간 거리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미나베(みなべ)와 다나베(田辺), 시라하마(白浜) 방안을 추천합니다.

당일치기도 가능하지만, 시라하마는 온천지로 유명해서 숙박하기 좋습니다. 옛날부터 지인과 자주 찾는 기이반도(紀伊半島)는 제주나 전라남도처럼 기온이 따뜻하고 식재료도 맛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인접한 다나베시(田辺市)는 자연의 천연 보고로서 난부시는 일본 최고의 매실 산지입니다. '한눈에 백만, 향기 십 리'라고 불리는 미나베 매화림은 일본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데 이 일대가 매화 향기로 휩싸일 정도로 아름다운 난부 최고의 명소입니다. '매실 뱅크'라고 적힌 탱크가 죽 늘어서 있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새콤달콤한 매실장아찌 냄새가 납니다. 일본에서는 소주 안에 우메보시를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와카야마현은 매실뿐 아니라 감귤과 복숭아 산지로 여름에는 복숭아가 일품이니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라하마나 다나베 방면은 뭐니 뭐니 해도 해산물입니다! 콩치 초밥을 비롯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참치와 가다랑어! 썬빵이, 곱치 같은 별미 생선과 겨울에는 고급 생선인 자바리도 먹을 수 있는데, 자바리는 일본에



- 01 도쿄역 앞에 핀 매화꽃
- 02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가는 길
- 03 한류 전철은 '사쿠라 전선' 이라고도 불린다
- 04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간사이 우라나바
- 05-09 일본 최고의 매화 산지인 미나베



서도 보기 드문 생선입니다. 그리고 멸치도 맛있습니다. 다나베는 어머니 고향으로 어린 시절 몸이 약했던 저는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조부모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일본의 박물학자, 생물학자, 민속학자인 미나가타 구마구스(南方熊楠) 씨가 오래 살았고, 합기도의 창시자인 우에시바 모리헤이(植芝盛平) 씨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나베시는 5개 마을이 합해져 생긴 지역으로 간키(近畿) 최대 면적을 자랑합니다. 세계유산인 구마노코도(熊野古道)와 온천 등 지역마다 결이 다른 매력적인 명소가 많은데, 그중 하나인 텐진자키(天神崎)는 일본의 우유나라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선구자로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 '행복의 스위치'에도 나온 곳입니다.

텐진자키는 다나베만 북쪽의 돌출된 곳으로 육지와 바다의 동식물이 납작한 암초를 사이에 두고 자라고 있으며, 숲과 바닷새가 하나가 되어 단일 생태계를 만드는 자연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실 텐진자키 바로 앞에 있는 땅은 어머니의 생가로서 제가 중학생 때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자연을 지켜 미래에 남기고 싶은 지역'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38년 전부터 자연을 지키기 위해 생활용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한 덕분에 지



10. 11 시라하마 도레도레시장
초밥과 회는 물론 바비큐도 가능하다
12-14 다나베시 텐진자키,태풍의 영향으로
생긴 고래 모양바위



금도 여전히 자연의 보고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제 뒤로 보이는 고래 같은 바위는 원래 옆으로 놓여 있어 걸어서 건널 수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잔잔한 것가의 분위기와는 달리 태풍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8월 오봉(お盆)에는 바다를 향한 오봉 행렬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난 지방의 독특한 문화로서 일본인도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라하마 방면으로 고급 호텔이나 숙소가 많으니, 오사카에서 이동할 경우 시라하마와 다나베, 난부와 함께 관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라하마 공항이 있어 도쿄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дай버 여러분

도 다나베나 미나베 민박집에 숙박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마노코도와 다나베시 아이즈가와 강 상류에 있는 계곡 기제쓰쿄(奇絶峡)와 류진(龍神) 온천, 겨울의 가와하라(川原) 온천 등 매력적인 곳이 많아 또 한 번 와카야마현 특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추천할 만한 벚꽃 명소와 와카야마현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3월 초에 오랜 시간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주한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배는 한 번! 참잔하는 일본인

사케소물리에인 추조 원장이 술을 키워드로 일본 문화와 사회를 소개한다.



집필 추조 카즈오(中條一夫)
주한일본대사관 문화전문위원장



일본인에게 ‘건배’는 술에 대한 ‘잘 먹겠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듯 ‘건배’도 첫 잔을 마시기 시작할 때만 한다.

아직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무렵, 한국인과 술을 마시러 가면 몇 번이나 건배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일본인은 보통 처음 한 번만 건배하므로 자꾸 건배하는 한국의 음주 문화에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고대 일본에서는 귀중한 수확물과 술은 신에게 먼저 바쳤다. 그다음 그것과 같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신과의 일체감, 그리고 참가자 모두가 일체감을 느꼈다.

현대에도 일본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산산쿠도’라 하여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술을 마시는 의식이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굳건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양식 결혼식에서 반지 교환에 해당한다.

단, 일본에서는 산산쿠도 의식 뒤에 신랑과 신부의 가족도 같은 술을 마

심으로써 두 가족이 새로운 친척으로서 인연을 굳건히 한다. 일본인에게 술은 참가자 모두가 일체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다.

‘건배’라는 말은 중국어에서 유래했는데 일본에서는 모두가 같은 술을 마시는 의식과 융합했다. 현재 연회 자리에서의 건배는 의식의 종료와 친목의 시작을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 우선 연장자가 인사를 하고 그다음 건배한 뒤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 연장자의 인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참가자는 건배를 신호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대화를 시작한다. 고대의 비유로 말하자면 건배 이전은 신의 시간, 건배 이후는 인간의 시간이다. 한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보통은 “일본인에게 ‘건배’는 술

에 대한 ‘잘 먹겠습니다’이다.”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듯 ‘건배’도 첫 잔을 마시기 시작할 때만 한다고 말이다.

건배는 한자로 ‘잔을 비운다’라고 쓰는데 앞서 말했듯 일본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같은 술을 마시므로써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목적으로 술이센 사람은 한번에 다 마시지만, 약한 사람은 입만 대는 정도라도 괜찮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배한 뒤에 다 마실 뿐 아니라, 건배하기 전에도 술잔에 남아 있는 술을 다 마시는 것이 술이 약한 내게는 부담스럽다. 아직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을 무렵, 한국인과 몇 차례 술을 마시러



가서 여러 건배를 하게 되는 것은 이해했다. 새로 건배하기 위해 잔에 술을 채워야 하는 것도 이해했다. 하지만 마시다 만 잔을 내밀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따르기 전에 다마시라는 의미 같다. 아니, 건배한 다음에 다 마실 거니까 건배하기 전에는 잔을 비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힘겹게 느껴졌다. 일본에서는 특히 병맥주를 컵으로 마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컵에 든 술이 반 이하가 되면 첨잔해 주는 사

람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도중에 잔을 채워주면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주량을 알 수 없어 별로지만 많은 일본인은 상대방 특히, 손윗사람의 컵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실례라고 느끼는 모양이다. 남은 것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가득 찬 잔의 첫 모금을 마셨으면 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따를 때마다 상대방에게 다 마시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본의 음주 문화를 모르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술을 마시러 가면 건배하는 것도 아닌데 빈빈하게 술을 권하는 일본인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술을 권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따라주기 전에 일단 잔을 비우므로 결과적으로 일본인보다 많이 마시게 된다.

이문화 교류의 현장에서는 상대와 자신의 차이점을 재밋게 느끼는 순간과 부담스럽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 상대방에게도 상대만의 논리가 있다는 걸 이해했을 때는 재밋게 느끼는 일이 많다.

음주 문화도 그 예외는 아니다. 내가 좀 더 술이 섰다면 항상 재밋다고 느낄 텐데...



밸런타인데이에 대하여

오가와 미츠노부 강사가 전하는 일본 요리에 담겨있는 일본 문화를 소개한다.



집필 오가와 미츠노부
현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일본의 밸런타인데이는 한 달 전부터 모든 백화점 지하의 식품 코너에 관련 상품을 반 이상 진열하여, 2월의 백화점 지하는 남성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위기가 됩니다.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면 한국은 커플 이벤트로, 사귀고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물론 일본도 커플 이벤트지만, 사귀기 전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밸런타인데이를 계기로 가까워져서 친구 사이에서 커플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 2월 14일만큼은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하면 어떡하지?'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남학생과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남성에게는 가장 떨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꽃이나 선물을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의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초콜릿을 주는 상대에 따라 초콜릿의 명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선물하는 초콜릿을 '혼메이 초코(本命チョコ)'라고 합니다. 이것은 커플이나 관심이 있는 남성에게 주는 초콜릿입니다.

회사의 직장동료, 상사에게 주는 초콜릿은 '기리 초코(義理チョコ)'라고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지만 밸런타인데이니까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남성에게 의리로 건네는 초콜릿입니다. 기리 초코를 받은 사람은 '2배로 보답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받은 초콜릿의 2배에 해당하는 선물을 화이트데이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여성 친구끼리 주고받는 초콜릿을 '토모 초코(友チョコ)'라고 하는데, 사이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뉴스에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은 '혼메이 초코(本命チョコ)', 그다음은 '마이 초코(マイチョコ)'라고 하는데, 마이는 'MY=나의'라는 의미로 '지분 초코(自分チョコ)'라고도 부릅니다. '마이 초코'는 그 지역의 유명한 초콜릿,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명한 파티시에나 쇼콜라티에가 만든 특별한 초콜릿을 남성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이지만 밸런타인데이 만큼은 문화적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을 위해 '마이 초코(マイチョコ)'를 선물해 보세요.

로쉐 초콜라

- 밀크 초콜릿 40g
- 현미 시리얼 50g
- 아몬드 분태 5g
- 데코 스노우 적당량



- ①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인다.
(이때, 50°C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② ①의 녹인 초콜릿을 27°C까지 온도를 낮춘다.
- ③ 현미 시리얼과 아몬드 분태를 섞어 놓는다.
- ④ ②와 ③을 섞는다.
- ⑤ 준비된 틀에 스푼과 포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담는다.
- ⑥ 냉장고에 넣어 굳힌다.
- ⑦ 굳힌 후, 틀에서 빼내어 데코 스노우를 뿌려 장식한다.



생 초콜릿

- 생크림 200g
- 55% 초콜릿 240g
- 밀크 초콜릿 50g
- 버터 15g
- 그랑마르니에 25g
- 코코아 파우더 적당량



- *18cm 정사각형 무스틀에 랩을 씌워 준비한다.
- ① 55%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인다.
(이때, 온도가 45°C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생크림을 70°C로 가열 후, ①에 넣고 섞는다.
 - ③ 부드러운 버터를 넣고 섞는다.
 - ④ 그랑마르니에를 넣고 섞는다.
 - ⑤ 준비된 틀에 부어 냉장고에서 굳힌다.
 - ⑥ 냉장고에서 하룻밤 굳힌 후, 원하는 크기로 잘라 코코아 파우더를 묻혀 마무리한다.

***그랑마르니에란?**

오렌지 큐라소의 대표적인 상품명. 곱약을 베이스로 한 오렌지 리큐어.



클래식 쇼콜라

직경 18cm 원형틀 1대	
70% 초콜릿	75g
생크림	85g
버터	45g
노른자	45g
설탕	45g
박력분	20g
코코아 파우더	40g
흰자	100g
설탕	80g



- ① 초콜릿과 버터를 중탕으로 녹인다. (이때, 50°C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성분이 변성되거나 풍미가 날아가므로 주의한다)
- ② 생크림 온도를 70°C까지 올린 후, ①을 넣어가며 휘퍼로 섞어 유화시킨다.
- ③ 노른자와 45g의 설탕을 섞어 30°C 전후의 중탕으로 데운 후, 뽕양게 될 때까지 거품을 올린다. (노른자는 차가우면 초콜릿과 섞을 때, 초콜릿이 굳으므로 차가운 냉기가 없을 정도로만 데운다. 너무 데우면 노른자가 익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④ 박력분과 코코아 파우더는 체에 내려 준비한다. (볼 안에서 두 종류의 가루를 확실히 섞은 후 체에 내린다. 체에 내림으로서 가루 입자 사이사이에 공기가 포함되어 반죽과 잘 섞이게 된다. 또한,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가루가 잘 뭉치지 않게 한다)
- ⑤ 흰자와 80g의 설탕을 섞어 머랭을 올린다. (머랭을 올릴 때는 설탕을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설탕량의 1/4씩 4번에 나누어 넣는다.
 - 1) 흰자의 멍울을 잘 푼 후
 - 2) 거품을 올리기 시작하여 휘퍼가 지나간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 3) 휘퍼가 지나간 라인이 더 확실하게 보이면
 - 4) 휘퍼로 머랭을 떠올려 보았을 때, 끝부분이 살짝 구부러지는 새부리 모양이 되면 좋은 상태다)
- ⑥ 머랭이 완성되었다면 잠시 보관하고 준비한 모든 재료를 섞는다. (재료를 먼저 섞어두고 머랭을 올리면 반죽의 온도가 떨어져 단단해지므로, 머랭을 다 완성한 후 재료를 섞는다)
- ⑦ 생크림까지 섞은 ②에 ③을 넣고 섞는다. (온도 관리에 주의)
- ⑧ ⑦에 머랭의 반을 넣고 마블 상태까지 섞고, ④를 넣고 섞는다.
- ⑨ 가루가 확실히 섞였다면 남은 머랭을 넣고 섞는다.
- ⑩ 18cm 원형 틀에 반죽을 넣고, 데크 오븐의 윗불 160°C와 아랫불 160°C 윗불 화력 1아랫불 화력 2로 설정하여 알루미늄 포일로 뚜껑을 덮어 15분간 굽는다. 15분 후, 아랫불 화력을 0으로 변경하여 댐퍼를 열고 약 30분 동안 굽는다. (컨벡션 오븐인 경우: 온도를 약 10~20°C 정도 낮추어 뚜껑을 덮고 약 40분 전후로 굽는다. 오븐 안에 증기가 많이 모여있다면,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 증기를 뺀다)





돌잡이와 에라비토리

한국과 일본의 돌잔치는 어떻게?





0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육아 중인 한일 부부의 일본인 아빠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 유짱(ゆうちゃん)이 돌을 맞아 가족끼리 소소하게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돌잡이 역시 진행했는데 유짱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은 바로 '마이크'였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는 저희 아내가 이를 재빠르게 뺏어, 결국 유짱은 실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돌잡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짱의 돌잔치에 대해 일본 가족에게 말했더니, 일본에서도 '에라비토리(選り取り)'라 불리는 돌잡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한국의 돌잡이만큼 일반적인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02

01-04 유짱의 돌잔치
05 조카의 에라비토리



03

에라비토리

여러 물건 중에서 아이가 골라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행사로서, 한국의 돌잔치와 개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는 준비하는 물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건과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주판 대신 계산기를, 붓 대신 펜을 준비하는 등 집에 있는 물건으로 대체해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04



05

将来は
コックさん

주판	계산을 잘하게 된다, 사업에 성공한다
돈	부자가 된다
붓	문학과 예술 방면에서 활약한다, 학자가 된다
가위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된다, 옷 부자가 된다
자	꿈꾸는 사람이 된다, 커서 큰 집을 짓는다
젓가락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리사가 된다
사전	공부를 잘하게 된다, 학자가 된다
공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된다, 스포츠 선수가 된다

제 조카는 젓가락 대신에 준비한 국자를 골랐는데, 나중에 커서 멋진 요리사가 될지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물건을 그린 '골라잡기 카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치고산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는 3, 5, 7살이 되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시치고산(七五三)'이라는 행사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3, 5살, 딸은 3, 7살이 되는 해의 11월 15일에 부모와 함께 집 근처 신사를 참배하고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이 나이에 진행하는 이유는 홀수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학과 거북이가 그려진 주머니에 든 빨간색과 노란색의 '지토세아메(千歳飴)'라 불리는 긴 막대 사탕을 받습니다. '지토세(千歳)'란 천년을 뜻하며, 학과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탕은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06 지토세 아메
- 07 시치고산 복장



일본 속 한국

~ 코로나 이후 교류를 이어가려는 사람들 ~



글·사진 : 김동진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3년만의 #일본여행 #낮선 풍경들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걸까? 지난 9월,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JENESYS 프로그램을 통해 3년만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는 친구도 있었고 10번 이상 다녀온 여행 고수도 있었는데, 손꼽아 기다린 시간만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기간은 아직 코로나방역이 엄격했던 시기였습니다. 일정 중 PCR 검사가 2번 있었고, 프로그램 도중에도 확진 판정이 나면 일주일 동안 격리가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을 피하고자 생겨난 일본의 방역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묵식(黙食)'입니다. 한자 그대로 묵묵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조용히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난 후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합니다. 처음 해보는 묵식 문화가 생소해서 몇 번인가 무심코 마스크 없이 일본 분께 말을 걸었는데, 제가 무안하지 않게 친절함 미소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배려겠죠.

01 설레는 출발 02 여전히 아름다운 레인보우 브릿지의 야경

02





03



04

03, 04 일본의 방역 문화 중 하나인 '묵식(黙食)'
05, 06 오다이바의 심볼이었던 대관람차

#오다이바 #대관람차의 추억 #꿈임 없는 교류

코로나의 흔적은 식사 문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다이바의 랜드마크라 불리던 팔레트 타운의 대관람차 운영 종료 소식입니다. 관광지의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했지만, 90년대 후반에 세워져 오다이바의 심볼이 된 대관람차가 많은 사람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문화원 리포터 여러분도 대관람차에 담긴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리며 코로나 이전을 회고했습니다. 대관람차를 지나 아쿠아시티 쇼핑몰 앞 광장에서 보이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06

05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있었고 뒤쪽 광장에서는 왓지떨하게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원을 그리며 춤추고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는 풍경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 반가운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류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 이후의 미래는 더욱 희망차지 않을까 합니다.

#우호 #일본 속 한국

방일 일정에는 일본의 교토부립 단교료쿠후(京都府立丹後緑風) 고등학교 학생과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방문 전 선물로 나눠 줄 한국 과자를 사러 돈키호테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도한 놀이(渡韓ごっこ)’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여행 온 듯한 기분을 즐기는 놀이로 K-POP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며 한국 과자와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돈키호테 한쪽에 마련된 한국 식품 코너를 보니 한국인지 일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07 일본 고등학생과 교류 시간
08.09 한국 식품 코너
10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일본에 가기 전에는 내심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분이나 저처럼 문화 교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이라도 한국과 일본의 우정을 갈라 놓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교류를_이어가려는_사람들

길었던 2022년도 저물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왕래가 어려운 시기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심을 두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방일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귀감이 되었고 귀국 후에도 한국과 일본 기업인의 네트워킹 민간교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양국 교류가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좋은 영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한일관계에 한걸음 다가서다

~ JENESYS 2022 한일차세대회의를 마치며 ~



2022년 9월 17일을 기점으로 11월까지 총 3번의 온라인 교류 활동과 12월 최종 오프라인 발표회를 포함해 JENESYS 2022 한일차세대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이 교육, 노동, 복지·노후를 주제로 팀을 나누어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를 떠올립니다. 항상 이 부분에 의문을 품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갈 청년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일 공통의 주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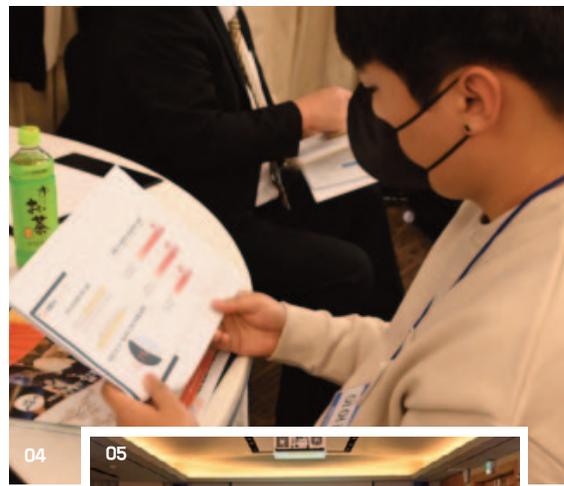
이번 한일차세대회의에서는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총 3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저는 ‘노년기’ 그룹이었습니다. 발표 주제로 청소년기는 ‘한일 영어 회화 교육의 현재 상태와 말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이었으며, 청년기는 ‘부정적인 사내 문화로 인한 바람직한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형성’,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연금제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청년의 인식 차이’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은 한국과 일본 학생이 모두 참석한 자리라 언어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KJAF(Korea Japan Alumni Forum) 단원이 도와주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가진 사회문제는

‘고령화, 저출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보다, 더욱 극심해져 가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의견을 나눈 결과 ‘국민연금’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지만, 한일 공통 복지를 한 주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서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지만,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어로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일본 학생 중 한 명이 한국어로 통역해 주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진행은 전문가 강의와 한일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노년기’ 그룹은 열정적인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01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인사 말씀
02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 개회사





국민연금을 주제로 발표 준비

‘국민연금’이 공통 주제로 정해지면서 사실 저조차 어떤 부분을 다뤄야 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속된 대화 끝에 한일차세대회의의인 만큼 청년의 시선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현행 연금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앞으로의 연금제도에 불안을 느낀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자기 주변의 2, 30대를 대상으로 SNS에 올려 일본 측 55명, 한국 측 4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각자 분담을 맡아 PPT를 만들고,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 서로 피드백하면서 완성해 갔습니다. 일본 학생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발표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명씩 맡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흔쾌히 맡았습니다. 사전에 작성해 준 대본의 번역본을 수정하고, 마지막 제언 부분의 발표를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수차례 줌으로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약 3달간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노년기’ 그룹에서는 제가 오프라인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무대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KIAF단원 여러분이 편하게 대해 주어 금방 풀렸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줌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만큼 발표 순서가 넘어가지 않았던 실수도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되어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피드백 담당자가 변경되었지만, 다른 팀의 ‘연금제도 이외의 노후 자산 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본인 팀원이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만나 발표를 준비한다는 것이



03-08 발표 모습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개인시간까지 내서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어 만족한 결과가 나왔고, 정말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수개월간의 준비가 한 번의 발표로 마무리되어 아쉽기는 했지만, 성취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일본의 높은 분과 앉게 되어 많이 떨렸지만 저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느낀 소중한 기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본이 좋아'가 아니라 일본에서 살며 공부하고 싶고, 가끔 그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폭 빠져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1분기 워킹홀리데이로도 못 가고, 2021년 1월에는 JENESYS 쿨재팬 리포터로 참여했지만 방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일 기회가 무산되자, 제가 좋아하는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차세대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09 발표자 단체사진
10~11 교류회 사진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많은 대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 없는 상황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이루어 낸다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더욱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주제에 대해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어 실력도 키우고 좀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